

5·18 역사적 사건과 기억... '예술적 실천' 장소로 소환

ACC, 11월 24일까지 '야외전시-현장 속으로: 기억과 사건' 전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광주'·'바람의 골짜기'·'상실 공유' 등



OBBA 작 '바람의 골짜기'

기억과 사건은 씨줄과 날줄처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사건은 기억을 통해 소환되고, 기억은 사건을 매개로 저장된다.

둘의 관계가 가장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발현되는 때는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다. 예술은 사건을 모티브로 기억이라는 발효과정을 거쳐 구현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그날의 상흔과 슬픔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 하자는 시민들과 희생자들의 바람이 투영돼 있다.

ACC가 '야외전시-현장 속으로: 기억과 사건' 전을 오는 11월 24일까지 연다.

1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억과 사건을 예술로 소환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강현 전당장은 "올해 야외전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축적된 기억과 사건을 예술적 시각으로 탐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당시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선선한 가을을 맞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기억과 사건'은 모두 7인(팀) 작가가 참여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로 인해 가설 울타리로 둘러싸인 ACC의 모습을 '장소에 축적된 기억과 사건'의 맥락으로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품 일부가 옛도청 복원공사 철거 폐기물을 활용



ACC의 야외전시 '현장 속으로: 기억과 사건'이 오는 11월 24일까지 열린다. 이용열 작 '상실 공유'

용해 제작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르도 조각, 설치, AR 등 다양하다. 장소 특정적 작품을 통해 과거 흔적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자는 취지다. 이번 전시는 무장애(배리어 프리) 동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비치했다. 상상마당에서는 19일까지 프랑스 유명 아티스트 JR의 전지구적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인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광주'가 진행된다. JR작가는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 벽면을 비롯해 천장 등에 대형 초상 이미지를 부착해 메시지를 발신하는 작업을 펼쳐왔다.

시민 1000명이 참여하며 각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이상을 소리로 표현한다. 참여자는 카메라 모양의 포토부스에서 자신의 초상을 촬영

후, 오디오 녹음공간으로 들어가 옛 도청, ACC 등 광주의 역사에 얽힌 개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가설 울타리 벽면을 채우며, 이러한 퍼포먼스로 인해 '공사현장'은 '역사를 기억하는 예술적 실천의 장소'로 전이된다.

이날 첫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참여자로 80년 5월 금남로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던 당시, 중학생이었던 정운국 씨가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씨는 당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선량한 시민들이 하루 속히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염원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동선을 따라 김동희 작가의 '망루', 석운동 작가의 '묵', 정소영 작가의 '증발'·'울랄'·'부유물'·'침전물', OBBA의 '바람의 골짜기', 오종의 '빛

드로잉 숲', 이용열의 '상실 공유'가 전시돼 있다.

예술극장 빅도어 앞의 '바람의 골짜기'는 바람의 소리를 시청각적으로 전환했으며 배롱나무숲을 활용한 '빛드로잉 숲'은 주변의 풍경과 공간을 겹쳐보이게 하는 효과를 상정했다.

광주읍성을 모티브로 한 '상실공유'는 주민들을 지켜주던 옛 터전이 울타리까지 헐려 탈바꿈한 현장을 구현한 것이다.

한편 박물관 학예사는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읍성부터 옛도청, ACC로 이어지는 장소성의 의미를 사유해볼 수 있다"며 "사건과 기억을 매개로 우리의 삶과 광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90년 뒤 공개될 한강 작품 공급하다

2114년 공개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슬로 도서관 숲 보관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프로젝트...다섯번째 작가로 참여

오는 2114년 공개될 한강의 미공개 원고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기존의 작품처럼 여전히 시적이면서도 서정적이며 울림이 있는 작품일까.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완성한 작품이 지금으로부터 90년 후에 공개된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Dear Son, My Beloved)라는 글은 제목 외에는 주제를 비롯해 내용, 분량, 형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강 작가의 이 작품은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 쓰였다. 영국 스킵틀랜드 출신의 개념미술가 케이트 패터슨 주도로 2014년 시작됐다. 한강은 프로젝트 다섯 번째 작가로 참여했고, 아시아 작가로는 처음이었다.

미래도서관 프로젝트는 100년에 걸쳐 매년 1명씩 작가 100명의 미공개 작품을 2114년 공개할 예정이다. 책의 제지로 쓰일 나무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외곽 숲의 총 1000그루를 사용한다

는 계획이다.

한강 작가에 앞서 캐나다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 노르웨이 작가 칼 오베 크나우스그르 등 노벨문학상의 단골 후보로 꼽히는 작가들이 참여했다.

한강 작가는 2019년 5월 노르웨이를 찾아 오슬로 외곽 '미래 도서관의 숲'에서 원고를 전달했다.

한강 작가는 당시 원전을 한국에서 가져와 원고를 봉인했다. 그는 "마치 내 원고이자 숲과 결연하는 것 같았다"며 "바라건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작은 장례식 같기도 했고,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세기의 긴 잠을 위한 자정가 같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는 봉인돼 오슬로 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고 있는 한강 작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은 작가의 평소 세계관, 사유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립뉴스



2019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 미래도서관 숲에서 원고 전달식을 하는 한강. /연립뉴스

한편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기자회견 등을 고사해온 한강 작가의 첫 공식 행보는 17일 열리는 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포니정 재단은 노벨상 발표 전인 지난달 19일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한강을 선정해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순 작가의 '황혼의 찬란한 여정'

고정희 개인전, 2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날마다 햇시간을 보내지 않고 속세 안 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작업을 하고 있다."

아흔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창작활동을 하는 원로 화가가 있다. 주인공은 광주전남 여성작가회 고문을 맡고 있는 고정희 작가.

고 작가가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오는 27일까지 '황혼의 찬란한 여정'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 중이다.

대부분 화가가 구순에 이르면 수전증이 있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 작가는 한 번 작업에 몰입하면 6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창작에 매달린다.

주제 '황혼의 찬란한 여정'이 말해주듯 전시장에서는 인생 만년에 접어든 작가가 최선을 다해 그린 40여 점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최근 만난 고 작가는 "이 나이가 돼 보니 외롭고 쓸쓸하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코로나에 심하게 걸려 죽을 뻔했다"며 "힘든 시절을 이기고 나니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림에 더 몰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속세도 다 못했는데, 병고와 싸우면서 붓을 놓



'인생은 구름같아요-환희'

지 않기 위해 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더 하면서 나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 숙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은 변화는 색감이었다. 이전 그림들이 화사하고 은은했다면 이번의 작품들은 원색적이고 색감이 두드러진다. '인생은 구름같아요-환희'는 코로나 힘든 시기를 이겨낸 작가가 바라본 이후의 세상에 대한 심상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작품 '인생은 구름같아요-환희'는 첫 바퀴도는 인생을 초점화한 작품이다. 알 수 없는 행로를 따라 원을 돌 듯 뱅뱅 돌고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 고 작가는 "인생은 매일 도는 첫바퀴와 다르지 않다"며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성진 소리에 얹히는 가야금 선율

표윤미 독주회, 내일 국립전파연구원 빛가람 전파홀

호쾌하고 온화한 우조와 강산제의 멋이 벤 강대 흥류를 비롯해 문명자유, 박귀희류 등 가야금산조의 풍미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소리아 아트컴퍼니(대표 표윤미)가 표윤미 가야금병창 독주회 '현을 어루만지어II-水宮歌'를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 국립전파연구원 빛가람 전파홀에서 펼친다. 목원대 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조선대에서 문화학 박사과정을 전공한 표윤미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이수자로, 건국대 매제연기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본 곡을 연주하기 앞서 호흡을 가다듬는 다스름 '강태흥류 가야금 산조'로 막을 올리는 공연은 혼합 소리 신사의 축하공연 '얕은반 사물놀이'로 이어진다. 복제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전남도립남도국악원 단원을 역임하고 돌미리국관 대표로 있는 박시양이 잡는다.

가야금병창 '단가 명기명창'도 레퍼토리에 있다. 팔도유랑가, 명인명창 등으로 불리는 이 곡은 탁월한 소리꾼과 재자가인이 모여 유유자적 산천을 유람하는 내용의 단가다.

판소리 '수궁가'를 병창으로 새롭게 작창한 문명자유 가야금병창 '수궁가' 중 '탐살을 탕탕-악성가' 대목도 올려 퍼진다. 도사가 우연히 병을 얻은 용왕을 진맥하다 약을 처방하는 장면부터 토끼가 자신의 배를 가르라 꼬를 부리는 '말을 허라니' 부분까지 볼 수 있다.

대미는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부터 자라에게 기지를 발휘해 구사일생하는 장면으로 이뤄진 '박귀희류 가야금병창 수궁가 중 화사자-관대장자'가 장식한다. '원해수반', '문명자유 말을 허라니', '제기말 불고' 등이 공연장을 수놓는다.

이 밖에도 표 씨는 전남도립국악단 장악부 수석 단원, 광주예술영재교육원 국악부문 지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소리아 아트컴퍼니 대표 및 예술단별발가얏고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제24회 팔광해남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제15회 일방울 국악상 특별상, 제4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 일반부 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 등을 받았다.

표 대표는 "음악의 능밀한 아름다움을 가야금병



가야금병창 표윤미 <소리아아트컴퍼니 제곡>

창을 매개로 전달하는 이번 연주회가 음악의 시공간, 향수, 진정성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르고 고른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온전한 섬의 여유를 선사하고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프리츠커 건축상' 야마모토 리켄, 18일 광주 특별강연

'프리츠커 건축상'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건축예술로 인류와 환경에 공헌한 건축가에게 매년 수여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올해는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명예교수인 야마모토 리켄(사진) 명예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의 건축에 대한 평은 건축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2024년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된 야마모토 리켄은 현대건축의 경계와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극복해온 건축가이다. 그는 무엇보다 건축과 건축가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도시건축의 통념에 균열을 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야마모토 리켄의 강연을 광주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 광주 특별강연이 열린다. 오는 19일(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B2 국제회의실)이며 주제는 'Living Together'.

전남대 건축학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회가 주최 및 주관하며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회,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 나무심는 건축인이 후원한다. 'Living Together'라는 주제는 함께하는 삶(생활)을 함의한다. 건축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삶을 영위하고 공유한다는 '더불어'의 의미를 지닌다. /박성천 기자 skypark@